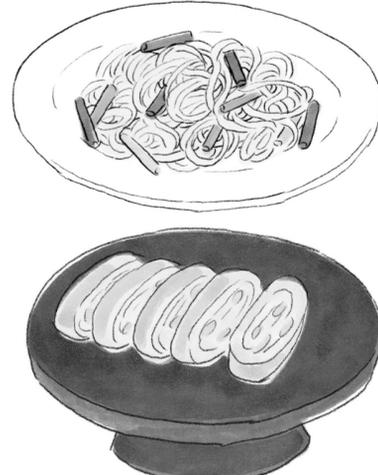


# 화가의 시골살이와 음식 담은 그림 에세이

안주는 화려하게  
먹이는 간소하게  
노석미 글·그림



노석미의 '안주는 화려하게'와 '먹이는 간소하게'는 작가의 일상과 음식을 담은 그림 에세이다. '마늘종파스타'와 '소시지 계란말이'.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음식 그림이다. 각각의 재료들과 완성된 음식, 그릇 등은 간단한 형태와 색감으로 그려져 있지만,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입맛을 다시게 만든다. 더불어 그림 옆에 소개된 조리법은 너무 간단해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한다. 34편의 글과 87컷의 그림을 엮은 신간 '안주는 화려하게'는 애주가인 그가 '한잔의 술도 한 줌의 먹이와 함께 축축하게 먹고 휴식을 갖는다'는 자세로 술과 안주에 대해 적어내려간 글이다. 소개되는 안주는 책 제목과 달리 전혀 화려하지 않다. 또 안주 뿐 아니라 반찬으로,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글은 '여럿이술'과 '혼술'로 나뉘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식탁에 불러오거나, 포틀럭 파티를 할 때면 양배추를이나 산마늘 파스타를 내놓는다. 혼술의 친구는 간단하기 그지 없다. 소시지 달걀말이, 조미김과 흰

쌀밥, 오징어채 볶음 등이다. 달콤한 꽃향기를 품어내는 아까시아꽃튀김처럼 독특한 안주는 그의 필살기다. 재출간된 '먹이는 간소하게'는 봄여름가을겨울을 사계절 제철 재료로 만든 먹이 이야기다. 직접 캔 달래로 지어먹는 봄의 달래달걀밥, 빗소리와 함께 부쳐 먹는 여름의 부추전, 고구마를 수확한 후 껍질을 벗겨 만드는 가을의 고구마줄기무침, 오래도록 양식이 되어준 겨울의 시래기밥 등 책 속에 사계절이 그대로 담겼다. 그밖에 마늘종파스타, 토마토 스프와 스튜, 사과파이, 오미자 효소, 밤 빵 다채로운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서툰 농부의 일상, 자연에 대한 고마움, 이웃들과의 만남, 식탁에서 나누는 친구들과의 대화 등 책에 실린 풍성한 이야기는 그가 만들어낸 음식에 다양한 맛을 더한다. <사계절·각 권 1만8000원, 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남성 과잉 사회(마라 비스달 지음, 박우정 옮김)=초음파 기술 보급 이후 전 세계에서 1억 6000만 명의 여아가 사라졌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마라 비스달은 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벌어진 성비 불균형의 원인과 그 파장을 추적한다. 낙태와 인구정책, 남아 선호 문화가 만들어낸 폭력의 구조, 잉여 남성 사회의 위험성을 생생한 취재와 데이터로 조명했다. <현암사·2만2000원>



▲최선을 다해 멸망 중입니다(이동은 지음, 정이웅 그림)=지구를 구하기 위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두 소녀의 유쾌하고 기묘한 여정. 총북 증평을 배경으로 아이들 연습생 출신 서진과 소꿉친구 아영이 인류멸망 프로젝트 'P-17'를 실행하며 '지구' 세계의 비밀이 펼쳐진다. 허블의 첫 만화 출간작이자, 다정하고 농담 같은 종말 SF. <허블·1만7500원>

삶의 궤적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문학동네·1만6800원>

▲뽕과 양배추가 있는 풍경(강보라 지음)=계층, 취향, 세대의 경계에서 서로를 낯설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풍경을 예리하게 그려낸 소설집. 이희석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뽕과 양배추가 있는 풍경'과 2025 젊은작가상 수상작 '바우어의 정원' 등 7편이 수록됐다. 낯설고 위계, 욕망과 불안을 마주한 인물들이 긴장 속에서 미묘하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포착하며, 서로 다른 <살림터·1만9000원>

▲초등 1학년 교실, 궁금하세요?(이경숙 지음)=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어난 꽃 같은 하루하루의 기록. 28년간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일 년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자연과 놀이, 우정과 성장을 함께한 교실 속 삶은 교육이 '순간의 예술'임을 보여준다. 아이와 교사가 함께 일구는 교실이라는 정원에서, 독자는 아이의 성숙과 교사의 성장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살림터·1만9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토마토로 만들어 줘(조예은 지음, 권서영 그림)=맹했다. 실수로 친구를 토마토로 만들어 버렸다! 상대를 토마토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평범한 중학생 마운.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어느 여름, 마운은 토마토로 변해버린 은혜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 나선다. 동경과 질투, 미움 같은 청소년기의 감정들이 끈적하고 새빨갳게 익어가는 이야기. 조예은 특유의 호러 감성과 권서영의 감각적인 그림이 더해져 사춘기의 정원을 함께 들여다보게 만든다. <창비·1만1000원>

기. 서른세 마리 고양이들이 전하는 특별한 여름나기가 시작된다. 귀엽고 감성적인 그림으로 한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에서도 사랑받은 작가 토마토리의 유쾌한 계절 그림책. <길벗어린이·1만5000원>

▲여름을 부탁해(토마토리 지음)= 덥고 끈적한 여름이 싫다는 고양이 친구들을 위해 오두막에 '진짜' 여름을 초대한다. 데굴데굴 수박, 으스스 유령, 뽕쟁 선봉 <철수와영희·1만5000원>

▲비상계엄을 이겨 낸 대한국민 이야기 (배성호·주수원 지음)=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국가가 함께한 122일의 이야기. "왜 사람들이 국화로 달려갔을까?" "대통령은 어떻게 탄핵될까?" 등 27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과정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풀어낸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 <철수와영희·1만5000원>

# 법정스님의 138개 문장... 지혜의 필사책

법정 스님의 말과 글  
법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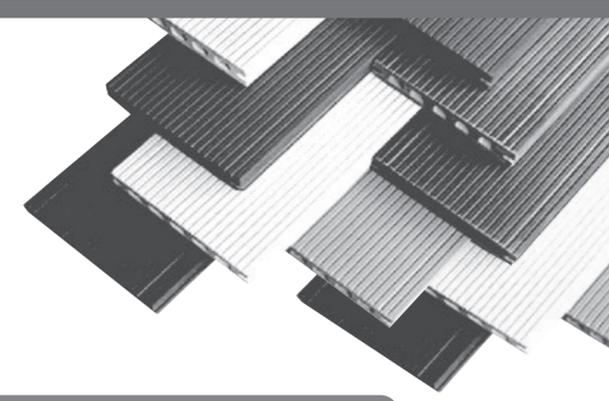
무소유를 설파했던 법정 스님(1932-2010)은 오늘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스님이 열반에 드신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지만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감동과 명료함을 준다. 지난 1932년 해남에서 태어난 스님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체험 후 전남대학 재학 시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선다. 이후 1956년 당대 고승인 효봉선사를 스승으로 출가한다. 쌍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선간거했으며 1975년 10월에는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법정스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정갈한 글쓰기다. 펴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울림을 주는 문장들로 가득하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증생들을 향해 했던 말과 글을 담은 책이 나왔다. 설타는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138개 문장을 뽑아 '법정 스님의 말과 글'로 엮었다. 책은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쓰면서 그 의미를 음미할 수 있다. 스님의 맑고 깊이 있는 '글'에서 67개 문장을 뽑았으며 대중 강연에서 전달했던 '말씀'에서 71개 문장을 골랐다. 138개 문장에는 스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어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도 좋다. 문장들은 '나'를 비롯해 '관계', '자연', '무소유', '지혜', '책', '살', '죽음' 등 9개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무소유'와 관련된 문장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는 오늘의 세대에 대한 '즉비로 다가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포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버리고 비우는 일") 각각의 문장들은 오래 음미하며 되새길수록 그 빛을 발한다. 읽고 쓰며 뜻을 오래 사유할 때 비로소 스님이 하고자 했던 문장들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장 속에는 깊은 성찰은 물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담겨 있어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적지 않다. <샘터·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